



“의료필수품 생산 및 유통에 차질 없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.”

- 김민석 국무총리, 의약계, 의료필수품 제조·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
- 주사기, 수액세트 등 의료필수품 생산·유통에 원재료 최우선 공급 의지 강조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(금)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*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·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

* [정부] 보건복지부(2차관 이형훈), 중소벤처기업부(1차관 노용석), 금융위원회(부위원장 권대영),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, 산업통상부(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)
[민간] (의료용품 제조) (주)한국백신(주사기 제조), (주)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(수액세트 제조), (의료유통)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, 케어캠프(의료기기 도매업체)
(의료기관 및 협회)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, 대한약사회

-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,
- 의료필수품의 생산·유통·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'비상 대응 태세'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,

-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-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
-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, 조제약포지,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위한 핵심원료(나프타)의 우선 공급 지원, ②의료기기 제조시 대체원료의 원활한 활용, ③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필수 의료기기 품목 제조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하였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토록 하면서,
 - 국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의원, 약국 등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·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과,
 -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하여 대체원료 투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지시하였다.
 - 중기부와 금융위에는 관련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,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원료 소진을 호소하는 시럽병 제조기업을 위해 석화업체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, 폴리에틸렌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정동혁 (044-200-2178)
		담당자	서기관 배유진 (044-200-2190)
			사무관 장석권 (044-200-2184)